

## 지방선거 소용돌이 속으로

‘미투’ 후폭풍에 출마 포기·법적 공방 ... 후보 캠프마다 촉각  
‘당원 명부 유출’ 불법선거 수사...광주시장 선거 구도 요동

6·1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터져 나온 ‘안희정 미투’ 파문과 사전 불법선거 수사결과가 광주·전남지역 선거판을 요동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4면〉  
성희롱 논란을 겪고 있는 구정창 입후보 예정자가 출마를 포기하는가 하면, 현직 군수가 성폭행 공방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는 등 일부 후보에게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인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장의 당원명부 유출 의혹에 이어 8일에는 역시 광주시장 후보인 강기정 전 의원마저 당원명부 유출로 고발당함에 따라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광주시장 선거 판세가 예측불허의 상태로 빠져 들 것으로 보인다.

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인 7일 강원도 투계대광산 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 사가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포기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에 나설 예정이었던 강 상임이사는 본인과 가족 건강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그는 지난 2003년 성희롱 논란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강 상임이사 측은 의혹을 제기한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지만, 안희정 파문 후폭풍에 진실이 더 왜곡될 수 있다

며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호 합평군수도 여성 3명과 성폭력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성 3명은 안 군수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 군수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여성 3명과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까지 고소했다.

다른 출마예정자나 현직 단체장, 또는 후보 주변 인물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성추문도 정치권에서 일반인에게까지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과거 성범죄 전력에 있는 출마 예정자에 대한 정보도 지역민에게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주로 선관위 후보 경력에 올라 있는 내용이지만 일부는 법적 판단을 받지 않은 풍문까지 사실인양 퍼지면서 관련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대선 당시 안 전 지사의 광주·전남 선거 운동을 도왔던 인사들도 대선 경선 당시 모습을 지우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선 경선 당시 안 전 지사를 지지했던 자치단체장 출마자 6~7명은 당시 지지 기자 회견을 한 사진을 SNS에서 삭제하고, 일부 지지자들은 SNS에 자신이 지지했던 것에 대한 후회의 글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캠프들도 이번 미투 파문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캠프 참가자나 선거운동원들의 단속에 나서는 등

주변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각 정당들이 이번 ‘안희정 미투’ 파문으로 성폭행·성추행 여부에 대해 ‘현미경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광주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한 번의 실수가 선거판을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에 후보 뿐만 아니라 선거 캠프 관계자들 모두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면서 “특히 여성 유권자들을 대할 때 여성 위주 행사 참석 시 매우 조심스러워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장 선거에서도 ‘당원 명부 유출’과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예측 불허의 선거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정당의 분위기다. 이용섭 후보의 경우 민주당 광주시당이 당원 명부 유출은 사실이라고 밝힌데다, 경찰이 이번 시당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자가 일자리위 사무실에서 발송된 점, 1회 200만원 안팎에 이르는 비용이 지출된 점에 주목해 발송비용의 출처를 중점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강기정 후보의 경우 고발에 따른 조동수사단에게서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광주지검 관계자는 “(명부유출 사건은) 지역사회의 관심이 많은 만큼 허술하게 수사할 수 없는 사안이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어 최대한 빨리, 꼼꼼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장애와 편견을 넘어 ... 평창동계패럴림픽 오늘 개막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8일 동계패럴림픽 사상 첫 금메달 획득에 도전하는 장애인 노르딕스키 대표팀 신의현이 강원도 평창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여자부 이도연과 훈련하고 있다. 9일 오후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강원도 평창, 정선, 강릉 일원에서 진행되는 평창 동계패럴림픽은 전 세계 49개국, 57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휠체어 컬링 등 6개 종목에서 메달경쟁을 펼친다. 역대 가장 많은 선수 35명이 출전하는 한국의 패럴림픽 사상 첫 금메달 획득과 종합 10위를 목표로 내걸었다. > 관련기사 20면

연합뉴스

##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최대 징역 10년

공소시효도 연장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2배 이상으

로 높이기 했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도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 연합뉴스

로 높이기 했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도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 연합뉴스

## 신정훈 靑 비서관 곧 사퇴...전남지사 출마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 현역 의원 출마 자체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신정훈(54)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퇴할 것이 확실시돼 주목된다. 이같은 신 비서관의 사퇴는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의 전략 공천인 지경선을 위한 것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전략공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신 비서관은 8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조만간 사퇴를 하고 전남도지사 선거 준비에 나설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전남도의 발전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신 비서관에 대해 전남 출신으로서 지역 상황에 정통한데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시대정신과도 부합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19대 국회의원(나주·화순 지역구)을 지낸 신 비서관은 영산포종과 광주 인성고를 거쳐 고려대(신방과)를 나왔다. 지난 1985년 광주학살 진상규명 및 미국의 사과를 촉구하며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을 주도하다가 옥살이를 했다. 복역을 마치고는 고향인 나주에서 농민회 활동을 하다 38세에 나주시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과 농어업담당

원내부대표를 지냈으며 특히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 공약과 한전 공대 유치 공약을 만드는 데 공헌했다.

이준석 사무총장은 앞서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던 이계호 의원에 대해 간접적으로 출마 자체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계호 의원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주 말이나 다음주 초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지역 여론을 들어보고 조만간 이 사무총장을 만나 의견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의원 주변에서는 출마를 고수하라는 압박이 거센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이 의원의 불출마를 전제로 신정훈 비서관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등판을 예상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 박지경기자 jkpark@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 정의용·서훈 방미...북미대화 설득

트럼프 대통령 면담 조율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로 평양을 방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8일 오전 미국으로 출발했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2박4일 간의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10일 오전(미국 현지 시각) 귀국길에 오른다.

〈관련기사 2면〉  
이들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한 반도 비핵화 의지와 북미대화 용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북미가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방미 첫 일정으로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장 하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 고위 안보·정보당국자들과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9일(미국 현지 시간)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세부 일정은 미국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미국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 서 원장은 일본을 각각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주변 4강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낼 방침이다. >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로자-사틴 스킨, 눈부신 피부의 새로운 기준

#### 헤라 로자-사틴 크림

속은 촉촉하고 겉은 보드라운 장미 꽃잎 같은 피부, 로자-사틴 스킨 섬세한 결계어로 완성한 이상적인 피부 컨디션입니다. 로자-사틴 콤플렉스™를 함유한 크림이 선사하는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결로 메이크업을 더욱 빛나게 하는 최적의 스킨을 경험하세요

HERA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hera.com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요금부담)